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第3回日韓ラウンドテーブル

코로나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コロナ時代のキャリア教育, 日韓の比較

일시日時

2020년 11월 28일 (토) 14:00~16:30

2020年 11月 28日 (土) 14:00~16:30

형식形式

Web 세미나(온라인)

Web 会議(オンライン)

주최主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JSSCE 일본진로교육학회

NYPI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JSSCE 日本キャリア教育学会

공동주최共催

ARACD 아시아진로개발학회, ARACD Korea 미래진로개발학회

ARACD アジア地区キャリア発達学会, ARACD Korea 未来進路開発学会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프로그램

※ 순차통역 제공

사회 : 김현철 Kim, Hyuncheo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미무라 타카오 Mimura, Takao | 와세다대학교 교육종합과학학술원 교수

14:00~14:05	인사말	김현철 Kim, Hyunche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미무라 타카오 Mimura, Takao 와세다대학교 교육종합과학학술원 교수
14:05~14:15	한국 발표	• 발표 1 : 코로나 시대의 초·중학교 진로교육 현황 - 현장체험에서 온라인 진로교육까지 김연희 Kim, Younheui(남성중학교 진로교사)
14:15~14:25		• 발표 2 : 코로나 시대의 고등학생 진로교육 현황 -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의 온라인 교육 변화 정동순 Jeong, Dongsun(경동고등학교 진로교사)
14:25~14:35		• 발표 3 : 코로나 시대의 진로센터 진로교육 현황 - 성북진로센터 온라인 진로지원 동향 유재선 Yu, Jaeseon(성북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
14:35~14:45	일본 발표	• 발표 4 : 코로나 사태 속의 커리어 교육 - 구마모토시의 대응 다나카 신이치로 Tanaka, Shinichiro(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지도 주사)
14:45~14:55		• 발표 5 :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본교의 커리어 교육 - 임시휴업 기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후쿠모토 타케후미 Fukumoto, Takefumi(사이타마 현립 우라와 상업고등학교 3학년 주임)
14:55~15:05		• 발표 6 : 코로나 이후의 커리어 교육 전망 -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형태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 와카에 마키 Wakae, Maki(주식회사 커리어링크 대표)
15:05~15:15	휴식시간	
15:15~15:35	일본 측 토론자 질문 / 한국 측 토론자 답변	
15:35~15:55	한국 측 토론자 질문 / 일본 측 토론자 답변	
15:55~16:25	온라인 참가자 토론 및 종합토론	
16:25~16:30	폐회	

목 차

❶ 한국

- 발표 1
코로나 시대의 초·중학교 진로교육 현황 - 현장체험에서 온라인 진로교육까지 5
김연희(남성중학교 진로교사)
- 발표 2
코로나 시대의 고등학생 진로교육 현황 -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의 온라인 교육 변화 13
정동순(경동고등학교 진로교사)
- 발표 3
코로나 시대의 진로센터 진로교육 현황 - 성북진로센터 온라인 진로지원 동향 19
유재선(성북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

❷ 일본

- 발표 4
코로나 사태 속의 커리어 교육 - 구마모토시의 대응 25
다나카 신이치로(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지도 주사)
- 발표 5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본교의 커리어 교육 - 임시휴업 기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31
후쿠모토 타케후미(사이타마 현립 우라와 상업고등학교 3학년 주임)
- 발표 6
코로나 이후의 커리어 교육 전망 37
-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형태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
와카에 마키(주식회사 커리어링크 대표)

코로나 시대의 초·중학교 진로교육 현황
- 현장체험에서 온라인 진로교육까지 -

김 연 희
남성중학교 진로교사

코로나 시대의 초·중학교 진로교육 현황

- 현장체험에서 온라인 진로교육까지 -

김 연 희
남성중학교 진로교사

I. 배경 및 새로운 요구

1. 한국의 특별한 배경

한국은 자유학년제라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1학년들은 시험보는 기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다양한 진로수업 및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는 경험을 한다.

또한 2, 3학년들도 진로 창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을 경험한다.

초, 중, 고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씩 배치되어 있다. 이 교사들은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총괄하며,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교과 수업과 진로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들이 있고, 교육부는 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사

이트인 ‘꿈길’을 운영하여 학교를 지원한다.

2. 코로나 19시대의 새로운 요구

2월말, 연간 진로교육계획을 세우고 여러 기관 및 강사들을 섭외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체험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등교도 학년별로 1주일씩 허락되며, 단체 활동이 금지되는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최근까지도 한 주 한 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융통성 있는 운영 방법이 요구되었다.

코로나시대에 맞는 진로체험의 가능성 및 효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운영의 실제

전국적인 사례 확보 어려움으로 올해 본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온라인 비대면 체험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학습플랫폼의 영상을 보며 활동하는 방법이다. ‘나와 가족의 꿈’을 주제로 학교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한 자료 영상을 보고 부모님을 인터뷰하였다. ‘미리캔버스’라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명함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부모님의 꿈에 관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zoom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체험이다. ‘기업가정신-리틀히어로’를 주제로 코로나 시대 학교생활의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때 ‘비캔버스’라는 온라인도구를 활용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을 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zoom의 소회의실을 활용한 게임식 조별 미션 체험이다. ‘빅데이터 체험’을 주제로 zoom으로 소모임 도구를 활용하여 토론하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네 번째 방법은 생방송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마술사체험을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한 생방송으로 운영하였다. 강사가 학생들과 채팅으로 소통하고 대답하며 진행하였다.

다섯 번째 활동은 미리 키트를 배부하고 온라인학습플랫폼에 탑재한 영상을 보며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마술도구 키트를 활용한 마술사 체험, 스트링 아트를 제작하는 수학교과연계 체험을 운영하였다.

여섯 번째는 과학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과학교과연계 체험이다. 국내 과학관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는 체험을 하였다.

일곱 번째는 zoom과 과학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탐구하는 활동이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국립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VR 자료를 보면서 탐구하는 ‘하나고르기’ 프로젝트 활동을 하였다.

2. 교내 체험

등교가 가능할 때는 교내에서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하였다.

대기업 지원 ‘코딩지니어스 캠프’는 종일 로봇 자동차를 제작하고 움직여보는 체험을 하였다.

진로특강으로 민주시민아카데미, 금융교육, 보훈테마체험, 창업창직체험은 외부 강사의 강의로 진행하였다.

현장직업체험이 불가능하여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지원으로 진로박람회를 운영하였다. 1부는 직업인 특강 2개를 선택하여 강의를 듣고, 2부는 실무체험으로 희망별로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3. 그 외

진로수업을 주 1회 진행하였는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구글 폼과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등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점차 zoom수업으로 패들렛, 구글프리젠테이션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진로상담은 학생들이 등교를 못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다. 카카오톡채널로 신청을 받고, 대면이나 카카오톡채널 채팅, zoom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Ⅲ. 운영 결과

코로나19 시대임에도 교육과정을 잘 때 기획했던 56시간을 모두 운영했다. 처음 2월에 예약한 프로그램들을 취소할 때는 힘들었지만, 상황에 맞게 변형하였다.

1. 온라인 비대면 체험

학생들과 강사의 소통이 매우 활발했다. 줌으로 하거나 생방송으로 하는 것은 실시간 채팅으로 모든 학생들의 반응과 질문에 답할 수 있어 만족했다. Z세대 아이들은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보다 채팅으로 질문하고 반응하는 것에 익숙하였다.

몰입도가 높고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참여했다. 학생들은 음소거로 강사의 말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강사도 동등한 거리에서 화면으로 학생 개개인의 얼굴과 표정을 살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질문 및 발표를 통해 모두에게 참여 기회부여가 가능했다.

학생들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과제 수행이나 발표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SNS 및 유튜브를 통한 소통과 참여방법에 익숙한 아이들은 실제 체험보다 온라인 상에서 발표하는 것을 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표현했다.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이 많아 여러가지 다채롭게 수업구현이 가능했다. 구글 프리젠테이션이나 사이트 등 구글도구, 패들렛, 비캔버스, 화이트 보드 등의 온라인 소통 도구들과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하루북 등 앱을 활용한 다양

한 표현과 활동이 가능했다. 또한 구글 퀴즈, 네이버 폼, 소크라티브, 카훗, 멘티미터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쪽지시험이나 설문, 퀴즈도 가능했다. 이런 온라인 도구에 아이들은 빨리 적응하고 익숙히 사용했다.

인터넷으로 검색가능한 다양한 자료들을 풍성하게 활용하기 매우 용이했다.

2. 교내 대면 체험

실무체험은 직접 등교하여 체험한 것이 좋았다. 온라인은 키트가 매우 단순하여 간단할 수밖에 없었다. 타학교의 경우 녹화영상이 아닌 zoom을 활용한 실무체험은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현장직업체험 대신에 진로박람회로 운영한 것도 평이 좋았다. 주제를 선택하게 하였고, 워크북으로 사전 자료조사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았다.

등교 체험 시 코로나 대응 단계별로 방역팀과 사전 협의 및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했다. 타 학년과 동시에 등교 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였다. 마스크 KF94 사전 지급 후 등교할 때 착용하도록 하고, 손소독제와 소독용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였다. 교실을 가급적 한 칸 건너 배정하고, 공연이나 전체 특강을 진행 시에는 강당에서 1, 2부로 학급을 나눠 진행하였다.

3. 그 외

패들렛을 활용한 3주간의 ‘1% 기본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진로 독서활동으로 윈더링 독서토론, 찬반토론, 하브루타 독서토론까지 가능했다.

진로상담은 가장 만족스러운 것 중 하나이다. 카카오톡 채널로 예약을 받고, 표준화검사를 토대로 대면이나 카카오톡 채팅, zoom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후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주니 많은 학생들이 뿐 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담을 하면서 호응이 매우 좋았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가 가능했고, 쉽게 자료를 공유하고, 파일을 보내줄 수 있어 효과가 좋았다.

IV. 고찰

1. 코로나 시대, 또 다른 기회가 되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줌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체험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조 활동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과제 수행이 가능 하며, 밀도 높은 진행이 가능했다. 과제 수행 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좋고, 즉시 공유 가능하며 수합이 용이했다.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장소, 시간을 초월한 진행이 가능했다.

타 학교 사례로 초등학교 교실과 중학교 교실을 줌으로 연결하여 중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 어떤 학교는 랜선 체육대회를 줌을 활용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2. 학교 수업의 변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간헐적으로 등교하면서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히 섞은 블렌디드 러닝이 자리잡게 되었다.

다양한 온라인 방법이 빠른 속도로 학교에 자리를 잡아, 교실 상황과 같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할 수 없었던 교육활동도 효과적으로 일어났다.

3. 앞으로 미래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될 수 있고, 또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 있다.

교사들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키워가야 한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진행용 키트와 체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체험료, 강사료 기준을 새롭게 책정해야 한다.

올해 거의 불가능한 공연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온라인 관람 시 저작권, 관람료 등에 관한 지침들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견학을 위해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 고품질 VR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이 필요하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참조).

학교는 학생들의 와이파이 및 기기 환경 지원, 공평하고 효율적인 출결 확인, 온라인 예절 및 언어, 저작권 교육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 또한 대면 체험활동이 주는 부가적 효과인 친구 관계 및 행복감 증진, 학교 적응력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https://blog.naver.com/moeblog/221872483193>

<https://airandspace.si.edu/udvar-hazy-center#>

코로나 시대의 고등학생 진로교육 현황
-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의 온라인 교육 변화 -

정 동 순
경동고등학교 진로교사

코로나 시대의 고등학생 진로교육 현황

-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의 온라인 교육 변화 -

정 동 순

경동고등학교 진로교사

1. 고등학교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의 현황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활동은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창업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2019년 고등학생들의 진로활동별 참여 및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조사는 <표 1>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교내 수업 및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등은 참여도가 높고, 개인별 희망에 따른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창업체험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참여는 낮지만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이 높게 나타난다. 2020년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창업체험 등 활동이 영향을 받아 축소

<표 1>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 현황 및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고등학교)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
「진로와 직업」 수업	7,027	84.0	3.78	0.97	5,532	66.1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7,049	84.3	3.84	0.93	6,257	74.8
진로심리검사	7,155	85.5	3.93	0.90	6,866	82.1
진로체험	6,547	78.3	3.95	0.91	7,409	88.6
진로상담	5,922	70.8	3.96	0.91	6,944	83.0
진로동아리	5,024	60.1	3.98	0.92	6,248	74.7
창업체험교육	3,500	41.8	4.01	0.93	5,806	69.4
N	8,365		8,090		8,365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초·중·고 진로교육현황조사.

주 1) ‘참여 현황’과 ‘향후 참여 희망’은 ‘예’라고 응답한 학생 수와 비율임.

2) ‘만족도’는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3) 만족도는 참여 현황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4) 항목별 비율과 평균이 높은 상위 3개를 음영 및 굵게 처리함.

되고, 간접 체험이나 학교로 방문하는 체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의 영향을 받는 진로체험에 대해 2019년 조사한 유형별 참여 및 도움 정도는 <표 2>와 같다.

고등학교 진로체험을 중학교와 비교하면 직업인 특강·멘토링의 참여비율에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장중심 체험에서는 학과체험을 제외하고 중학교보다 낮다. 중학교는 직업체험에 중점이라면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학과체험에 중점을 둔 결과로 해석된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진로체험 감소에 대한 영향이 덜 받지만 학과체험, 직업인 특강 등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II.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

코로나 시대에 따라 비대면 체험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박람회: 서울교육청에서는 매년 일정 장소에서 진로상담(자기이해, 고입, 대입, 학과, 직업 등), 진로체험(디자인, 미용, 패션, 의료, 방송 등), 직업인 강연 등을 다양한 내용으로 진로박람회는 운영한다. 2020년은 학생이 게임을 하듯이 온라인에서 가상캐릭터를 만들어 가상체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일부 체험은 체험 키트를 사전에 제공하였고, 실시간 Q&A, 온라인 상담 등으로 쌍방향소통을 구현하였다.
- 2) 온라인 교육센터: 서울시 중구는 2020년 5월 온라인교육센터를 오픈하여 ZOOM

<표 2>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현황 및 도움 정도

진로체험 유형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 현황		도움 정도		참여 현황		도움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직업인 특강·멘토링	6,688	75.0	3.89	0.97	6,326	75.6	3.84	0.94
현장견학	6,277	70.4	4.02	0.91	4,585	54.8	4.00	0.91
현장 직업체험(실제 직업체험)	5,189	58.2	4.04	0.91	3,156	37.7	4.05	0.89
직업 실무체험(모의 직업체험)	5,026	56.4	4.08	0.91	2,934	35.1	4.10	0.88
학과체험	4,412	49.5	4.07	0.91	4,467	53.4	3.98	0.93
진로캠프	4,070	45.6	4.10	0.93	3,337	39.9	4.03	0.93
N	8,917		7,973		8,365		7,252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

주 1) '참여 현황'은 '예'라고 응답한 학생 수와 비율임.

2) '도움 정도'는 1점(전혀 도움 안 됨)~5점(매우 도움 됨)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3) 도움 정도는 참여 현황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4) 항목별 비율과 평균이 높은 상위 3개를 음영 및 굵게 처리함.

를 이용한 비대면 화상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건축가, MC·성우 체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메이킹 프로그램(애니메이션 플랩북, 무드등, 스탠드 등), VR을 이용해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라이브 또는 영상시청으로 참여한다.

- 3) 블렌디드 러닝: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연속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자율주행자동차, SW보안, 영화교실 등)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체험과 비대면 체험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 4) 온라인 학교 진로체험의 날: 서울 송파구 OO고는 온라인으로 상담 1시간, 직업체험 3시간, 학과체험 3시간을 운영하였다. 체험은 사전 체험 사이트를 안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상담은 상담교사를 섭외하여 전교생 온라인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였다.

Ⅲ. 온라인 교육 인프라 강화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현장 진로체험은 감소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체험이 시도되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 및 준비가 요구된다.

- 1) 소통방식: 온라인 체험이라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가상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콘텐츠만 제공하는 방식만으로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가능하면 실시간 쌍방향 화상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만약 콘텐츠만 제공된다면 실시간 Q&A로 보완해야 한다. 블렌디드 러닝과 같이 대면, 비대면 교육을 혼합하는 형태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2) 개인맞춤형: 온라인 상담, 멘토링 등이 매우 활성화되었고 학생 만족도 높았다. 이전보다 공간적 제약으로 만날 수 없는 직업인을 만나는 기회가 제공된 결과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 문제로 직업체험이나 직업인 멘토링에 제약이 있었으나 온라인 교육으로 일부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급화상멘토링, 소규모 진로사라책(1:5), 1:1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만남은 학생-멘토간, 학생-학생간 다양한 소통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다양한 직업체험, 직업인 DB를 구축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 3)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야 한다. 소수학생이 선택한 진로 과목을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방식의 수업이 요구된다. 2020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방식, 인프라 구축 등 경험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9), pp. 92-96

허인,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클래스 온라인
개관, 신아일보, 2020.05.15

서울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온
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최, 연합뉴스, 2020.09.15.

코로나 시대의 진로센터 진로교육 현황
- 성북진로센터 온라인 진로지원 동향 -

유 재 선
성북진로직업체험센터 센터장

코로나 시대의 진로센터 진로교육 현황

- 성북진로센터 온라인 진로지원 동향 -

유 재 선
성북진로직업체험센터 센터장

I. 문제와 목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4차례에 걸쳐 개학이 연기되었고 4월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는 등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심화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제는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교차방식의 수업이 일상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교육지원 방식의 환경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코로나19시대에 진로체험 센터의 온라인 진로교육 실태와 동향에 대하여 성북진로센터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경과 및 방법

온라인 개학 이후,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학교마다 갖추

기 시작했으며, 교사들도 에듀테크 활용 직무연수를 통해 온라인 수업체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대여, 인터넷 접속지원 등은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면 중심의 진로체험에 익숙하던 진로센터는 코로나 초반기의 당혹감을 진정시키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진로 체험과 진로교육의 지원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초반기에는 학교급별 단위학교들의 온라인 개별접속 환경과 학습플랫폼의 한계로 15~20분짜리 진로교육 동영상 제작하여 공급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한편 초반기에는 수업을 담당하는 마을교사나 강사들도 온라인 수업 경험이 많지 않아 온라인 수업을 꺼리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실 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어서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아쉬

움이 컸다.

이에 성북센터는 마을교사들의 온라인 활용 역량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화상회의 서비스 (Zoom, Webex)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방식의 원격진로 수업 방식을 전격 도입하였다. 아울러 원만한 원격수업 진행과 영상제작을 위해 임시스튜디오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영상장비를 구비하는 등 원격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정도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방식이 교차되고 단위학교별로 수업 일정과 방식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 교급별 수요충족을 위해서 진로교육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플랫폼에 탑재하도록 공급하는 방식, 쌍방향 소통의 실시간 수업방식, 대면방 식과 비대면 방식의 혼합 지원방식으로 구분하 여 단위학교 수요에 맞추어 지원하였다.

또한 체험키트 개발을 통한 온라인 직업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연속형 진로프로그램과 온라인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방식의 진 로체험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했다.

Ⅲ. 운영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수립된 2020년 진로교육 운영방식은 거의 100%가 대면 방식이었다. 이는 대부분 단위학교와 진로체험센터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영방식 이었다. 그러나 전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지속적 확

산은 새로 운 비대면 방식의 진로교육 지원을 요구하였고 진로체험센터는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성북진로센터는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수가 90개로, 그 중에 56개 프로그램이 온라인 방식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의체험이나 직업멘토링은 학교들의 요구에 맞 춰 비동기식 영상제작 형태로 지원되며, 연속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성북미래학교와 자유학년 제 프로그램, 진로캠프, 전공멘토링은 실시간 쌍방향 방식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체험키트 개발과 함께 진로체험도 실 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에 진행된 진로박람회도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Ⅳ. 문제해결 고찰

최근 한국에서는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학습 효율성 저하 문제와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등교수업 참여일수의 부족에 따른 대면지도 기회의 부족과 온라인 수업의 질 관리 격차에 따른 문제는 진로교육 지원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생과 마을교사 상호간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확대하고 피드백을 강화했다. 또한 마을 교사들 간에 온라인 수업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 고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온라인 활용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도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학습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학습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져 결국 수업참여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고 수준별로 맞춤형 수업설계와 활동중심의 수업진행이 효과적이다. 자기주도적 참여형 진로체험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경험으로 알 수 있다.

V. 미래교육 고찰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일상의 기준 즉 뉴 노멀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러한 일상에서 변화된 새로운 기준은 앞으로 펼쳐질 진로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진로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멘토들을 만나 배움을 넓혀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체계는 온-오프라인이 혼합된 형태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초반기에 플랫폼의 미비로 과제형 또는 자료공유형 수업방식에서 이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방식의 원격 수업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처럼 온라인 수

업과 기숙사 생활을 통해 밀도 깊은 체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학습이 혼합되는 브랜드드러닝 방식의 미래교육이 진로교육에도 점차적으로 도입되리라 생각된다.

성북진로센터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브랜드드러닝 방식의 프로그램 접목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성북의 역사문화 지역자산 기반의 프로젝트형 진로프로그램인 ‘성북지역특화사업’에 우선 적용해 볼 예정이다.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사전에 기본적인 학습정보를 익히고 오프라인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체험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으로 혼합되어 운영되는 플러닝 방식의 진로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 속의 커리어 교육
- 구마모토시의 대응 -

다나카 신이치로
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지도 주사

코로나 사태 속의 커리어 교육 - 구마모토시의 대응 -

다나카 신이치로
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지도 주사

I. 서론

2016년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 그 당시 구마모토시립 초중학교의 교육 ICT 도입 수준은 정령 지정도시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19위로 지극히 낮았다. 하지만 구마모토시가 부흥에 주력하는 가운데 시장이 내건 “100년 후 미래의 초석 다지기로서 교육 ICT 환경정비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새 학습지도요령이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는 2020년도에 맞춰 태블릿 단말기 등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교 사태가 닥쳤다.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구마모토시가 실시한 대응책을 소개한다.

계를 유지하면서 상호학습에서 의견 피력까지 서서히 나아갈 수 있게 각 학교에서의 실천을 추진했다. 그와 동시에 온라인 수업의 모델을 제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5가지 스텝:
PPT 자료에 수록된 그림-역자 주

II. 온라인 수업을 위한 5가지 스텝

온라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 시교육위원회는 아래 그림과 같은 5단계를 준비했다. 임시휴교 기간 중에도 학생들 및 가정과 밀접한 관

온라인 수업 내내 태블릿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노트에 적은 내용을 태블릿 단말기로 촬영해 제출하면 교사가 태블릿상에 선으로 표시해서 돌려주는 방

식도 시도됐다. 구마모토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ICT를 활용한 “주체적이고 대화적인 깊이 있는 학습”을 목표로 삼고, OECD가 제시한 Student Agency에서도 강조되는 힘을 육성하고자 했다. OECD는 이 힘을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되짚어가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시 받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하고” “틀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틀을 만들며” “남의 판단이나 선택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는” 힘을 뜻한다. 임시휴교 기간의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직원이 있었고, 그런 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동영상 교재로 만들어 제출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III. 커리어 교육에서의 온라인 수업

임시휴교 기간에 구마모토시가 실시한 온라인 수업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사태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100년 후 미래의 주춧돌이 될 아이들에게 필요한 힘을 길러주고자 준비해온 것이었다. 1년 전에 세계의 어느 누가 현재와 같은 코로나 재난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즉 우리는 “**향후 지금과 같은 사회가 이대로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사회가 될 것인가. 그조차 알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케 된 것이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한 힘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가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사회가 변해도 학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

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평상시 수업에서도 ICT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직업세계 역시 크게 변화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즈음에는 희망하던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시대에 적응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도 구마모토시는 “**주위의 각종 상황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ICT나 AI 등의 힘도 이런 목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IV. 선진교의 실천사례

위에서 서술한 관점에서 기업과 일체가 되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커리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교가 구마모토시립 북부중학교다. 이 학교는 2018년·2019년도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및 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 교육과정연구「ESD」의 지정교로,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와 연결되는, 미래와 연결되는 ESD~ESD를 통한 학습지도와 평가 연구개선~”이라는 연구테마 하에 “지속 가능한 사회실현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 본연의 자세와 학교 전체에서 ES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방법 등의 개선책을 연구해 왔다. 그 특징적인 실천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V. IT 기업과 연계한 수업

이 학교는 3학년생의 종합 학습시간에 프리마켓 기업 “메르카리”와 연계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Project 2040~20년 후의 비즈니스모델을 생각해보자」는 명칭의 이 수업에서는 “20년 후의 비즈니스모델을 생각해보자”는 테마로 과제 해결형 학습 프로그램(PBL)을 시도했다. 종래의 가치교환의 변천과 현재의 비즈니스 및 서비스 등을 배운 다음, 20년 후의 미래에 어떤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있으면 보나 사회가 될지 그룹워크를 통해 토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보통 학교수업에서는 경제 시스템이나 비즈니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사회과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힘을 기르는 대단히 뜻 깊은 학습이 됐다.

기업과 연계한 수업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기업 강의를 듣고 학생들은 저마다 비즈니스플랜을 세웠다. 각자의 플랜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조언을 받은 뒤 학생들은 최종적인 플랜을 가다듬어서 발표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모델의 비즈니스화를 구상했다. 이 학생에 따르면 “하와이 여행을 떠날 경우, 자기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체험을 판다”는 내용이다. 비디오로 영상을 보여주지만 하는 것은 기존 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니, 체험박스 같은 것을 준비해서 현장의 기온이나 바람,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고안한다. 이 아이디어가 흥미로운 것은 비즈니스모델로 성립시키는 포인트까지 생각했다는 점이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개 역할을 기업이 맡는다. 판매자로부터 여행 체험 소재를 제공받은 기업이 체험박스를

만들어, 사려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자로서는 여행도 하고 돈도 번다는 이 점이 있다. 체험 구매자에게 받은 금액의 4분의 1을 기업이 판매자에게 지불한다는 것까지 계산한 점이 재미있다.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여행회사와의 제휴도 고려할 수 있다.

VI. 결론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에는 정작 차가 한 대도 없다. 바로 Uber 애기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올 8월부터 Uber를 이용한 식사택배가 구마모토시에서도 시작됐다. 아이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북부중학교 학생이 고안한 비즈니스모델과 유사한 사례를 최근 TV에서도 봤다. 요 1년 사이 세상이 크게 변했음을 새삼 실감한다. 커리어 교육 역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고 다양한 과제에 도전해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小学館・総合教育技術10月号
 時事通信社・教育委員会が本気出したらスゴかった
 熊本市立北部中学校 <http://www.kumamoto-kmm.ed.jp/sch/j/hokubujh/esd/>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본교의 커리어 교육
- 임시휴업 기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

후쿠모토 타케후미

사이타마 현립 우라와 상업고등학교 3학년 주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본교의 커리어 교육 - 임시휴업 기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

후쿠모토 타케후미

사이타마 현립 우라와 상업고등학교 3학년 주임

1. 임시휴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만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급속한 전개로 우리의 생활과 교육현장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보도된 이후 수 개월이 지나 코로나 확산이 교육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2월 27일(목) 저녁 무렵, 내각총리대신이 3월 2일(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봄방학에 들어갈 때까지 임시휴교를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사이타마현은 그 다음날인 28일(금)에 3월 2일(월)부터 학년말 휴업일 전까지 임시휴업 한다는 통지를 교육장명으로 내렸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매년 2월 하순에 고등학교 입시가 치러지는데 28일은 그 당일이었습니다. 입시 준비를 위해서 전날인 27일, 본교는 학생들에게 2월 28일(금)부터 3월 4일(수), 6일(금)은 입시에 따른 임시휴업을 한다고 알리고 오전수업만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

데 장기간의 임시휴업이 발표되자 향후 대응에 대한 충분한 지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곤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입시를 어떻게 할지, 졸업식은 어떻게 할지, 재학생들에게는 무어라 지도할지, 빠른 시일 내 결정하고 실시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본교는 전문고등학교인 만큼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부터 정보 관련 기기와 교육에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Net 통신을 이용한 ICT 지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그다지 진척되지 못해, 학생들이 홈페이지(HP)를 보고 정보를 얻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경부터는 학생들에게 홈페이지의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나서 등교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본교는 입시 전인 2월 하순에 학년말고사를 치고, 3월에는 다음 연도를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따라서 당초 27·28일에 내려진 학년말 휴업일까지의 임시휴업 지시는 딱히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봄방학 숙제를 어떻게 내줄 것인가만

검토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맞아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했고, 사이타마현은 임시휴업 기간을 5월 31일(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에 걸친 임시휴업의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임시휴업은 진로지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년이면 본교는 3월에 2학년을 대상으로 차년도를 대비해 실제로 기업 등을 방문하는 견학회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도 방문처와 사전협의 등의 준비를 마치고 2월 중순에 학생들에게 사전지도도 한 뒤 3월 12일(목)에 실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4월부터는 진로ガイ던스나 적성검사, 모의시험 등 단계적인 진로행사와 진로상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신년도는 입학 및 진급한 학생들의 의식계발을 촉구하는 중요한 때인데, 이 시기의 임시휴업은 특히 고3 진급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 임시휴업 중과 등교재개 후의 진로지도 방침에 대해서 진로지도부를 중심으로 수 차례 검토했습니다.

II. ICT 활용

본교가 당초 실행했던 HP상의 정보제공은 보안 측면의 문제가 있어서 그룹웨어로 로그인해 이용하는 「커뮤니티룸」을 급히 설치했습니다. 학생용 커뮤니티룸으로는 ICT에 의한 학습지원 시스템으로 전체 연락망과 더불어 학년·교과별 캐비닛을 만들어서 과제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질문용 메일주소를 교과별로 만들어 과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했고,

학습 이외의 질문이나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메일주소도 확보했습니다. 교직원용 커뮤니티룸에는 연락과 자료제공용으로 일별 캐비닛이 설치됐습니다. 그 후 본교는 장기화된 임시휴업에 대한 대응과 ICT 활용의 실천을 위해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Google사의 「G Suite for Education」의 그룹웨어 「구글 클래스룸」 사용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을 위한 ICT 기반 학습지원은 커뮤니티룸에서 클래스룸 활용으로 옮겨갔습니다. 현재는 앙케트나 진로희망 조사 등에도 클래스룸을 이용합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은 코로나 2차, 3차 유행 및 확산을 내다보고 재임시휴업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본교는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ICT로 커뮤니티룸이나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임시휴업 기간 중의 연락 및 정보제공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등교 재개 후에는 본래 집회 형식으로 진행됐던 차년도 선택과목 설명회를 3밀(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고자 커뮤니티룸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진행했고, 전 학년을 모아놓고 열었던 강연회는 1, 2학년은 집회 형식으로, 3학년은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형식으로 실시했습니다.

GIGA 스쿨 구상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문부과학성은 추가 지원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년 내에 각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ICT를 한층 더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진로지도부의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각종 조사와 취업·진학 관련 정보, 면접지도 및 작문·소논문 지도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지도에서는 face-to-face 방식과 인터넷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학교에서는 ICT를 비롯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이 급속한 변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대응 양상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차년도, 더 나아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커리어 교육 전망
-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형태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 -

와카에 마키
주식회사 커리어링크 대표

코로나 이후의 커리어 교육 전망

-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형태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 -

와카에 마키
주식회사 커리어링크 대표

1. 문제와 목적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으로 전국에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됐습니다. 이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한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로 “대면 방식의 수업과 체험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즉 아이들의 학습의 장과 학습 기회 상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면 방식의 커리어 교육에 여러 가지 과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기업측으로부터는 “교육 지원을 계속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는 상담이, 학교측으로부터는 “사회와 연계된 학습이나 커리어 교육으로 실시되던 직업체험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대체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나”는 상담이 양쪽에서 쇄도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이전의 동일본 대지진 복구 사업에서 시행했던 「커리어 챌린지 데이(이하 「CCD」)」라는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번 긴급사태에 대한 당사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행히 Society

5.0을 표방하는 오늘날, 문부과학성에서 추진 중인 학교 ver 3.0, GIGA 스쿨 구상에 힘입어 학교의 ICT화가 점차 진전되고 있었기에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CCD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CCD를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로 통칭하고, 수업*그림 1 참조실현을위한학교및기업대상설명회를 열어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학교는 “긴급사태 하에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실현”과 “ICT를 활용한 커리어 교육 추진”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은 학생들의 학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긴급사태 하의 가장 중요한 학교측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키는 교육지원 활동 실적을 쌓게 됩니다. 학생들로서는 이 같은 사태에도 외부와의 연결관계를 유지하고 커리어 교육에 필수적인 학습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I. 방법

수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아래의 4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탐색했습니다.

1. 학교측에서 실시 가능한 ICT 환경(회선 상황이나 기자재) 조사와 정비 지원

현재 GIGA 스쿨 구상이 가속화되고 있긴 하나, 중학교의 ICT 환경은 학교(시정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가 희망 학교측의 ICT 환경을 꼼꼼하게 청취한 뒤, 교실과 외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회선의 보안성이나 기자재 관련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2. 학교와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실시공간 선정과 조정

ICT 환경과 마찬가지로 외부와 접속 가능한 온라인 툴(web 회의 시스템) 역시 다양각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온라인 툴의 통일이 불가피했기에(어떤 학교에서 사용하는 앱이 다른 학교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경우 등이 발생), 본 사업의 제공 주체인 당사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툴(Google Meet)을 쓰기로 결정하고 학교측과 기업측이 당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툴로 접속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3.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콘텐츠 개발과 운영관리 (학생들의 학습을 보증하는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과 기업 강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균질화)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콘텐츠는 「CCD On-line Meets」로 통일된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기존의 대면 방식 CCD를 온라인 실시용으로 시간 배분하는 등 진행을 최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균질화를 보증했습니다.

4. 학생들과 강사를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와 테크니컬 서포트 스태프 배치에 의한 운영지원

8개의 온라인 회장에 8명의 기업 강사와 학교(교사와 학생들)가 접속해서 수업을 실행하려면 당일 수업 진행을 담당할 각 회장=부스별 코디네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종합 코디네이터는 전체 관리 책임을 맡았고, 부스 코디네이터는 교사와 강사 모두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중심인물로서 수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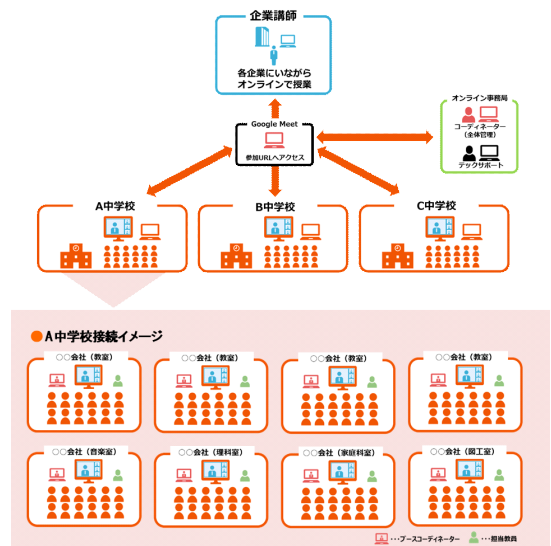


그림 1.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 실시 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차후에는 당사 스태프 이외의 자격 소지자를 모집해서 부스 코디네이터로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접속이나 앱 사용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스태프를 배치해 당일 수업의 매끄러운 진행을 보조했습니다.

Ⅲ. 결과와 고찰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들은 교사와 학생들에게서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기업과 강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보통은 근처 기업에 체험하러 보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직장체험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커리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교사),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외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학생)와 같은 감상이 쏟아졌고, 기업 강사들은 “이번 참가로 저 자신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다.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이 많았고 학생들이 사전학습도 철저히 해와서 뿌듯했다.”와 같은 감상을 내놓았습니다. 제 1회 수업은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린 성과는 “학교가 외부와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강사와 교실이 연결되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심인물(코디네이터)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이 보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지역자원이 적은 지역(외딴섬이나 과소지역 등)의 학생들도 이제까지는 대면하기 어려웠던 타 지역의 기업,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커리어 교육의 기회가 보증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금년도에는 4차례

에 걸쳐 수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회부터 3회까지는 3개 중학교와 8개 기업이 각기 참가하지만, 4회에는 새로운 시도로 한 중학교의 학생들이 1인당 한 대의 단말기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수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신종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몰고 온 “강사와 교실”의 연결과 학습에 대한 도전이었으나, 그 실효성이 확인된 지금 당사의 목표는 코로나 이후에 GIGA 스쿨 구상으로 현실화될 학교 ver.3.0에서 당연시되는 “1인당 한 대” 단말기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개별학습, 유비쿼터스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즉 커리어 교육에서의 ICT의 유효 활용 사례를 다양한 형태의 실적으로 쌓아나가고 싶은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비용 부담입니다. 관계 조직들이 어떤 형태로 협력해 나가야 할지도 차년도 이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문헌

- 内閣府 Society 5.0「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が拓く新たな社会」説明資料
- 文部科学省 (2018) Society5.0に向けた学校 ver.3.0
- 文部科学省 (2020) 令和元年度 文部科学白書
- 文部科学省 (2020) 「GIGAスクール構想」について

第3回日韓ラウンドテーブル

コロナ時代のキャリア教育, 日韓の比較

■ プログラム ■

※ 逐語通訳

モデレーター：金鉉哲 Kim, Hyuncheol |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三村隆男 Mimura, Takao |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 教授

14:00～14:05	趣旨説明	金鉉哲 Kim, Hyuncheol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三村隆男 Mimura, Takao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 教授
14:05～14:15	韓国	報告1：コロナ時代の小中学校における進路教育現況 - 現場体験からオンライン進路教育まで 金妍希 Kim, Younheui(南城中学校 進路教師)
14:15～14:25		報告2：コロナ時代の高校生に対する進路教育の現況 - 進路活動および進路体験のオンライン教育の変化 鄭東淳 Jeong, Dongsun(京東高等学校 進路教師)
14:25～14:35		報告3：コロナ時代の進路センターにおける進路教育の現況 - 城北進路センターにおけるオンライン進路支援の動向 俞在善 Yu, Jaeseon(城北進路体験センター長)
14:35～14:45	日本	報告4：コロナ禍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 - 熊本市の取組 田中慎一郎 Tanaka, Shinichiro(熊本市教育委員会 指導主事)
14:45～14:55		報告5：コロナ時代における本校のキャリア教育 - 臨時休業期間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実践 福本剛史 Fukumoto, Takefumi(埼玉県立浦和商業高校 第3学年主任)
14:55～15:05		報告6：アフターコロナのキャリア教育を見据えて - 「社会に開かれた教育課程」の新たな形「キャリアチャレンジデイOn-line Meets」 若江真紀 Wakae, Maki(株式会社キャリアリンク 代表)
15:05～15:15	休憩	
15:15～15:35	日本側パネリストからの質問と韓国側パネリストによる回答	
15:35～15:55	韓国側パネリストからの質問と日本側パネリストによる回答	
15:55～16:25	オンライン参加者からの質問とパネリストによる回答	
16:25～16:30	総括	

目 次

● 韓国

■ 報告 1

- コロナ時代の小中学校における進路教育現況 - 現場体験からオンライン進路教育まで 47
金妍希(南城中學校 進路教師)

■ 報告 2

- コロナ時代の高校生に対する進路教育の現況 55
- 進路活動および進路体験のオンライン教育の変化
鄭東淳(京東高等學校 進路教師)

■ 報告 3

- コロナ時代の進路センターにおける進路教育の現況 61
- 城北進路センターにおけるオンライン進路支援の動向
俞在善(城北進路体験センター長)

● 日本

■ 報告 4

- コロナ禍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 - 熊本市の取組 67
田中慎一郎(熊本市教育委員会 指導主事)

■ 報告 5

- コロナ時代における本校のキャリア教育 - 臨時休業期間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実践 73
福本剛史(埼玉県立浦和商業高校 第3学年主任)

■ 報告 6

- アフターコロナのキャリア教育を見据えて 79
- 「社会に開かれた教育課程」の新たな形「キャリアチャレンジデイOn-line Meets」
若江真紀(株式会社キャリアリンク 代表)
-

コロナ時代の小中学校における進路教育現況

－ 現場体験からオンライン進路教育まで －

金 妍 希

南城中学校 進路教師

コロナ時代の小中学校における進路教育現況 ー現場体験からオンライン進路教育までー

金 妍 希

(南城中學校 進路教師)

背景と新たな要求

1. 韓国の特別な背景

韓国は自由学年制という独特な教育課程を運営している。中学校課程の1年間、生徒は試験のプレッシャーから脱出し、夢と才能を探せるよう討論・実習など、生徒参加型に授業を改善し、進路探索活動などの様々な体験活動ができるよう教育課程を柔軟に運営する制度である。1学年は試験期間を活用して、集中的に様々な進路授業や体験を通じて、自分の適性と興味を探索する経験をする。

また、2、3学年も、進路の創意的体験活動を通じて、様々な進路体験をする。

小中高のすべての学校に進路専任教師が1人ずつ配置されている。この教師たちは、学校の進路教育全般を総括し、様々な進路体験および進路教科の授業と進路相談を通じて、生徒の進路探索を支援している。

このため、地域別に進路職業体験支援センターがあり、教育部は体験を申請できるサイトの“クムギル(夢の道)”を運営して学校を支援する。

2. コロナ時代の新たな要求

2月末、年間進路教育計画を立て、複数の機関および講師を手配して万端の準備を整えた。

しかしコロナのせいで外部の体験活動が全面的に禁止となり、登校も学年ごとに1週間ずつとなるなど団体活動が禁止され、制約ができたため、大きな困難に直面した。最近まで1週1週が予測できない状況の連続で、そのたびに柔軟な運営が求められた。

コロナ時代に合った進路体験の可能性と効率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い。

運営の実際

全国的な事例の確保は難しいため、今年の本校の事例を中心に紹介したいと思う。

1. オンライン非対面体験

最初の方法は、オンライン学習プラットフォームの映像を見て活動する方法である。

“私と家族の夢”というテーマで学校の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に搭載された資料映像を見て、保護者をインタビューした。“ミリキャンバス”というオンラインツールを活用して、デジタル名刺を制作した。そして自分と保護者の夢に関する報告書をオンラインで提出するようにした。

2つ目は zoom を使った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体験である。“企業家精神-リトルヒーロー”をテーマにしたコロナ時代の学校生活に関する問題点を探して解決策を考えてみる活動である。この際、“beecanvas”というオンラインツールで討論し、意見を提出する活動を行った。

3つ目の方法は、zoom の小会議室を使ったゲーム式のチームミッション体験である。

“ビッグデータ体験”をテーマに zoom で小会議ツールを使って討論し、ビッグデータを分析して問題を解く活動を行った。

4つ目は生放送で行う方法である。マジシャン体験を Youtube ライブで生放送した。講師が生徒とチャット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ながら答えた。

5つ目の活動は前もってキットを配り、オンライン学習プラットホームに搭載された映像を見ながら作る体験である。マジックキットを使ったマジシャン体験、ストリングアートを製作する数学と連携した体験を運営した。

6つ目は、科学館ホームページを使った科学と連携した体験である。韓国内の科学館ホームページの資料を使って、広報リフレットを制作する体験をした。

7つ目は、zoom と科学館ホームページを使

って探求する活動である。米国スミソニアン博物館の国立宇宙博物館、自然史博物館の VR 資料を見ながら探求する“1つ選ぶ”プロジェクト活動をした。

2. 校内体験

登校が可能な時は、校内で徹底した防疫の中で進められた。

大企業が支援する“コーディングジュニアキャンプ”は、1日ロボット自動車を製作して動かしてみる体験である。

進路特別講義として民主市民アカデミー、金融教育、報勲(国家への貢献)テーマ体験、創業創職体験は外部講師によって講義を行った。

現場職業体験が不可能で、進路職業体験センターの支援により、進路博覧会を運営した。1部は職業従事者の特別講義2つから選んで講義を聞き、2部は実務体験で希望によって様々な体験を行った。

3. その他

進路授業を週1回の割合で行ったが、学校に登校できない時は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で映像授業を受け、Google フォームとプレゼンテーション、設問などを使った課題を行った。徐々に zoom 授業として padlet、google プレゼンテーションなどの補助ツールを活用して授業を行った。

進路相談に関しては、生徒に登校できないため kakao チャンネルを作った。kakao チャンネルで申請を受け、対面やチャット、zoom での相談を行った。

運営結果

コロナ時代であるにも関わらず、教育課程を作成する際に企画した 56 時間をすべて運営できた。当初 2 月に予約したプログラムを取り消す際は大変だったが、状況に合わせて変更した。

1. オンライン非対面体験

生徒と講師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非常に活発だった。Zoom や生放送で行うことはリアルタイムチャットですべて生徒の反応と質問に答えることができて満足だった。Z 世代のこともたちは手を挙げて質問するよりチャットで質問して反応することに慣れている。

集中度が高く、すべての生徒が疎外されずに参加できた。生徒はミュートで講師の言葉を集中して聞くことができた。講師も同じ距離感で画面から生徒個々人の顔と表情を見ながら、状況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質問および発表によってすべてに参加する機会が与えられた。

生徒はオンラインツールを活用した課題や発表に非常に積極的に参加した。SNS および Youtube 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参加方法に慣れた生徒たちは、実際の体験よりオンライン上で発表することに、より自由にアイデアを構想して表現していた。

多様なオンラインツールがあつて様々な授業が可能になった。Google プレゼンテーションやサイトなどの Google ツール、padlet、beecanvas、ホワイトボードなど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とミリキャンバ

ス、mangoboard、harubook などのアプリを使った多様な表現や活動が可能になった。また Google クイズ、naver フォーム、socrative、kahoot、mentimeter などのツールを活用して学習ミニテストやアンケート、クイズなども可能になった。こうしたオンラインツールに生徒たちの適応は早く、有用できた。

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できる資料は豊富で多く、非常に使いやすかった。

2. 校内の対面体験

実務体験は、直接登校して体験した点よかった。仕方のないことだが、オンラインはキットが非常に単純で簡単であった。他校の場合、録画映像ではなく zoom を使った実務体験の満足度が高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現場職業体験の代わりに進路博覧会を運営したことも好評であった。テーマを選択できるようにし、ワークブックで事前の資料調査と結果報告書を作成するようにし、生徒と教師の満足度が非常に高かった。

登校体験の際、コロナに対応するため、防疫チームと段階ごとに協議および役割分担を行うことが非常に重要であった。他学年と同時に登校した場合は動線が重ならないよう慎重に対処した。マスク KF94 を事前に支給して登校時には着用するようにし、手の消毒剤と消毒用ティッシュで随時消毒を行った。教室はできるだけ 1 つおきにし、公演や全体的な特別講義の際には講堂で 1 部と 2 部に分けて行った。

3. その他

padlet を使った 3 週間の “1%の基本習慣作り” プロジェクト、進路関連の読書によるワンダリング読書(探訪読書)、討論、havruta 読書討論まで可能になった。

進路相談は最も満足を得た項目の 1 つだ。Kakao チャンネルで予約し、標準化検査をもとに対面や kakao チャット、zoom で相談を行った。相談後は報告書を作成して送ってくるので、生徒だけでなく保護者からも好評を得た。オンラインでも十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共感を得ることが可能で、手軽に資料を共有でき、ファイルを送ることもできて効果的だった。

考察

1. コロナ時代、新たな機会に。

コロナによって多くの困難があったが、むしろ新たな可能性も多く見つけることができた。Zoom を活用した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体験も集中度が高かった。チームで協力して取り組んだ問題体験テーマも実施できたし、密度の高い活動が可能だった。課題の遂行時に様々な資料を検索して活用することもよかったし、すぐに共有して集めることも手軽にできた。オンラインツールを使って場所や時間を超えた進行が可能になった。

他校の事例では、小学校の教室と中学校の教室を zoom でつなげて、中学の先輩たちとリアルタイムで話をする活動を行った。あ

る学校ではネット運動会を zoom で行ったりした。

2. 学校授業の変化

小学校と中学校は断続的に登校しつつ、オンラインとオフラインの授業を適切に混ぜたブレンディッドラーニングが定着した。

様々なオンラインでの方法が素早い速度で学校に定着し、教室にいるような授業が行われ、時にはオフラインの教室ではできなかった教育活動も効果的に行われた。

3. 今後について

今後、コロナが続く可能性もあるし、新たなウイルスの出現もありえるだけでなく、オンラインで行われる学習の長所を生かした新たな方法自体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と感じる。

教師は、ものすごい数のオンラインツールを活用して、授業とプログラムの開発のための力を磨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進路体験支援センターは、新たな時代に合った進路体験プログラムの開発と講師の確保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オンライン用キットや体験方法も研究する必要がある。また、オンライン体験料や講師料も新たに設定する必要がある。

今年はほぼ不可能であった公演を安全に体験させる方策が必要で、オンラインでの観覧時は著作権や観覧料などに関する指針が必要である。また、オンライン見学のために博物館や展示館でも高画質 VR 映像の制作や配布が必要である。(米国スミソニアン博物館を参照)

学校は、生徒の wifi および機器環境の支

援、公平で効果的な出席確認、オンラインマナーおよび言語、著作権教育などに対する対策が必要である。また対面の体験活動が与える附加的効果である、友人関係や幸福感、学校への適応力向上という部分についてもどう強化していくべきか考える必要がある。

参考文献

<https://blog.naver.com/moeblog/221872483193>

<https://airandspace.si.edu/udvar-hazy-center#>

コロナ時代の高校生に対する進路教育の現況
- 進路活動および進路体験のオンライン教育の変化 -

鄭 東 淳

京東高等学校 進路教師

コロナ時代の高校生に対する進路教育の現況 ー進路活動および進路体験のオンライン教育の変化ー

鄭 東 淳

(京東高等学校 進路教師)

1. 高等学校の進路活動および進路体験の現況

学校で行われる進路活動は、“進路と職業”教科授業、授業中の進路探索、進路心理検査、進路体験、進路相談、進路同好会、創業体験などに区分され、これに対する2019年高校生の進路活動別の参加および満足度、今後の参加希望調査は次のとおりだ。

〈表1〉 学校の進路活動別参加現況および満足度、今後の参加希望(高等学校)

学校の進路活動	参加現況		満足度		今後の参加希望	
	頻度	比率	平均	標準偏差	頻度	比率
「進路と職業」授業	7,027	84.0	3.78	0.97	5,532	66.1
教科授業中の進路探索	7,049	84.3	3.84	0.93	6,257	74.8
進路心理検査	7,155	85.5	3.93	0.90	6,866	82.1
進路体験	6,547	78.3	3.95	0.91	7,409	88.6
進路相談	5,922	70.8	3.96	0.91	6,944	83.0
進路同好会	5,024	60.1	3.98	0.92	6,248	74.7
創業体験教育	3,500	41.8	4.01	0.93	5,806	69.4
N	8,365		8,090		8,365	

出処 韓国職業能力開発院(2019). 小中学校進路教育現況調査

注1) 参加希望と今後の参加希望は「はい」と答えた生徒数と比率

2) 「満足度」は1点(非常に不満)～5点(非常に満足)のリッカート尺度で答えた結果の平均と標準偏差

3) 満足度は参加現況「はい」と答えた生徒を対象に調査した。

4) 項目別の比率と平均が高い上位3つを陰線および赤字処理した。

結果によると、校内の授業および活動として行われる“進路と職業”教科の授業、授業中の進路探索、進路心理検査などは参加度が高く、個人の希望による進路体験、進路相談、進路同好会、創業体験教育などは相対的に参加度が低いけれど、満足度、今後の参加希望が高く表れた。2020年のコロナによって進路体験、進路同好会、創業体験など活動が影響を受けて縮小し、間接体験や学校を訪問する体験が拡大すると予想できる。

コロナ時代の影響を受けた進路体験に対して、2019年に調査したタイプ別参加および参考になった程度は次のとおりである。

〈表2〉 進路体験タイプ別の参加現況および参考になった程度

進路体験タイプ	中学生				高校生			
	参加現況		参考の程度		参加現況		参考の程度	
	頻度	比率	平均	標準偏差	頻度	比率	平均	標準偏差
職業従事者の特別講義・メンタリング	6,688	75.0	3.89	0.97	6,326	75.6	3.84	0.94
現場見学	6,277	70.4	4.02	0.91	4,585	54.8	4.00	0.91
現場体験(実際の職業体験)	5,189	58.2	4.04	0.91	3,156	37.7	4.05	0.89
職業の実務体験(模擬による職業体験)	5,026	56.4	4.08	0.91	2,934	35.1	4.10	0.88

進路体験 タイプ	中学生				高校生			
	参加現況		参考の程度		参加現況		参考の程度	
	頻度	比率	平均	標準 偏差	頻度	比率	平均	標準 偏差
学科体験	4,412	49.5	4.07	0.91	4,467	53.4	3.98	0.93
進路キャンプ	4,070	45.6	4.10	0.93	3,337	39.9	4.03	0.93
N	8,917		7,973		8,365		7,252	

出処 韓国職業能力開発院(2019). 小中学校の進路教育実況調査

注1) 「参加現況」は「はい」と答えた生徒数と比率

2) 「参考の程度」は1点(まったく参考にならない)～5点(非常に参考になる)のリッカート尺度で答えた結果の平均と標準偏差

3) 「参考の程度」は参加現況の「はい」と答えた生徒を対象に調査

4) 項目別の比率と平均が高い順位を陰影により表示処理した。

高等学校の進路体験を中学校と比較すると、職業従事者の特別講義とメンタリングの参加比率には大きな差がないが、現場中心体験では学科体験を除けば中学校よりも低い。中学校は職業体験に重点を置くとすれば、高等学校は大学進学のための学科体験に重点を置いた結果だと解釈できる。コロナ時代によって、高等学校は中学校よりも進路体験の減少に対する影響を大きく受けないが、学科体験、職業従事者の特別講義での変化が求められる。

2. コロナ時代の新たな変化

コロナ時代によって、非対面体験のためのさまざまな試みが行われ、その代表的ないくつかの事例を次の通り紹介したい。

1) オンライン博覧会：ソウル教育庁では、毎年一定の場所で進路相談(自己理解、高校入試、大学入試、学科、職業など)、進路体験(デザイン、美容、ファッション、衣料、放送など)、職業従事者の特別講義などをさまざま

な形で博覧会として運営している。2020年は生徒がゲームをするようにオンラインで仮想キャラクターを作って、仮想体験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作った。一部の体験は体験キットを事前に提供しており、リアルタイムQ&A、オンライン相談など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行った。

2) オンライン教育センター：ソウル市中区は2020年5月オンライン教育センターをオープンし、ZOOMを使った非対面画像によるコンサルティングや多様なプログラムを提供している。具体的には、進路体験プログラム(建築家、MC・声優体験、Youtubeクリエイターなど)、メイキングプログラム(アニメのフラップブック、間接照明、スタンドなど)、VRを使った絵描きなど、さまざまな分野のプログラムが提供されており、ライブまたは映像視聴によって参加もできる。

3) ブレンディッドラーニング：ソウル城北区で運営する連続型の進路体験プログラム(自律走行自動車、SWセキュリティ、映画教室など)で、コロナの拡散により対面体験と非対面体験を並行して運営した。

4) オンライン学校進路体験の日：ソウル松坡区〇〇高校は、オンラインで相談1時間、職業体験3時間、学科体験3時間を行った。体験は事前の体験サイトで案内し、報告書を作成するようにしており、相談は相談教師を招いて全校生によるオンライン1対1相談を実施した。

3. オンライン教育インフラの強化

コロナ時代によって、現場の進路体験は減少

し、さまざまな形態のオンライン体験が試みられた。今の危機を新たな教育を導入するための機会にするためには、オンライン教育へのさまざまな案や準備が求められる。

1) コミュニケーション方式: オンライン体験でも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になるように構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仮想体験インフラを構築し、コンテンツのみ提供する方法だけでは教育の効果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可能であればリアルタイム双方向映像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であるべきだし、万一、コンテンツのみ提供されるならば、リアルタイムのQ&Aで補完するべきである。ブレンドィッドラーニングのように対面、非対面教育を混合する形態も学習の効率性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

2) 個人に合わせた方式: オンライン相談、メンタリングなどが非常に活性化され、生徒の満足度も高かった。以前よりも空間的な制約ができたせいで行けなかった職業従事者に会う機会も提供された結果だ。特に農業漁業の場合には、地理的な問題で職業体験や職業従事者のメンタリングに制約があったが、オンライン教育で一部を克服する機会となった。学級ビデオメンタリング、小規模の進路指導本、1対1相談など多様な形での出会いは、生徒－メンター、生徒－生徒、などさまざま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可能にした。これを契機にさらに多様な職業体験、職業従事者のDBを構築して個人に合わせたサービスを作るべきである。

3) 高校学業点数制への準備: 高等学校は生徒が自分の進路によって望む科目を選べる高校学業点数制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小数の

生徒が選んだ進路科目を1つの学校で開設することは難しいため、オンライン方式の授業が求められる。2020年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な授業方式、インフラの構築などを基礎に高校学業点数制の基盤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参考文献

韓国職業能力開発院(2019)、小中学校進路教育現況調査(2019)、pp. 92-96

ホ・イン、中区教育支援センター イロウムクラス オンライン開館、新亞日報、2020. 05. 15
2020. 09. 15

ソウル教育庁報道資料、ソウル市教育庁、2020
オンラインソウル進路職業博覧会を開催、
聯合新聞、2020. 09. 15

コロナ時代の進路センターにおける進路教育の現況
- 城北進路センターにおけるオンライン進路支援の動向 -

兪 在 善

城北進路体験センター長

コロナ時代の進路センターにおける進路教育の現況

ー城北進路センターにおけるオンライン進路支援の動向ー

愈 在 善

(城北進路体験センター長)

問題と目的

全世界的にコロナ感染症が急速に拡散したことによって混乱が重なる中、韓国でも4回にわたって新学期が延期され、4月から段階的オンラインでの新学期を実施するなど、全く経験したことのない状況となり、教育現場での混乱は深まった。

コロナ感染症の拡散によって、オンラインによる遠隔授業が避けられなくなり、今では状況によっては対面と非対面を交互に行う授業が日常化されたことにより、新たな教育支援方式の環境構築が必要となった。ここではコロナ時代に進路体験センターのオンライン教育の実態と動向について、城北進路センターの事例を中心に考察したいと思う。

経過および方法

オンラインでの授業開始後、登校授業を遠隔授業に転換するためのシステムを学校ごとに

整え始め、教師もエデュテック (Edu Tech) の活用研修を通じてオンライン授業の体系を整え始めた。

また、教育部を中心として各自治体が社会的弱者層にある生徒の遠隔授業を支援するためのスマート機器の貸与、インターネット接続などは、遠隔授業のためのインフラ構築の促進剤になった。

こうした流れの中で対面中心の進路体験に慣れていた進路センターは、コロナ拡散初期の当惑を沈静させ、オンラインによる非対面方式の進路体験と進路教育の実施方法を真剣に悩み始めた。しかし、コロナ拡散初期には、教育段階、教育課程の個別のオンライン接続環境と、学習プラットフォームの限界により、15～20分の進路教育動画を制作し、供給する程度にとどまっていた。

一方、初期には授業を担当する市民教師や講師も、オンライン授業の経験が多くなく、オンライン授業に消極的であるなどの問題が多かった。また、リアルタイム双方向授業ではないため、生徒と教師の間で緊密にコミュニ

ケーションを取れないという難点も大きかった。

これに対して城北進路センターは、市民教師のオンライン活用スキル研修を実施し、ビデオ会議サービス (Zoom, Webex) を使った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方式の遠隔進路授業方式を導入した。さらに、円滑な遠隔授業の進行と動画制作のため臨時スタジオを用意し、映像装備も備えるなど、遠隔進路支援体型を構築するに至った。

しかしコロナの拡散程度によって、生徒の登校授業と遠隔授業が変わり、単位科目ごとに授業の日程と方式が相違して、一括支援計画を樹立することは簡単ではなかった。教育段階ごとの需要を満たすため、進路教育の動画資料を制作して学校のプラットフォームに搭載するように供給する方式、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リアルタイム授業方式、対面方式と非対面方式の混在に区分し、需要に合わせて支援した。

また、体験キットの開発によってオンラインの職業体験、自由学年制プログラム、連続型進路プログラムとオンライン博覧会に至るまで、非対面方式の進路体験と進路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を拡大させた。

運営結果

コロナ感染症以前に作られた 2020 年の進路教育運営方式は、ほとんど 100%が対面方式だった。これは大部分の教育課程と進路体験センターが、これまで慣れていた運営方式だ

った。しかし、まったく経験したことのないコロナ感染症の持続的な拡散によって、新たな非対面方式での進路教育が求められ、進路体験センターは、この方式を採択したのである。

現在、城北進路センターが運営しているプログラムが 90 個あり、その中の 56 のプログラムはオンライン方式またはオン-オフライン混合方式で運営されている。創意体験や職業メンタリングは、学校の求めに合わせて非同期式の動画で行われ、連続型の進路体験プログラムとなる城北未来学校と自由学年制プログラム、進路キャンプ、専攻メンタリングは、リアルタイム双方向方式のオン-オフラインで行われる。最近では体験キットの開発とともに進路体験もリアルタイムオンラインで行われており、今月に入って行われた進路博覧会もオンライン仮想空間で非対面方式で行われた。

問題解決の考察

最近、韓国では遠隔授業の長期化によって学習の効率低下と学力格差の憂慮が高まっている。登校授業への参加日数が不足することによる対面指導の機会の不足と、オンライン授業の質的格差による問題は、進路教育の支援にあっても同様だ。これを解決する方案として、生徒と市民教師の双方がリアルタイム双方向遠隔授業を拡大し、フィードバックを強化した。また市民教師同士のオンライン授業における質の格差を解消するため、教師の自発的努力だけに頼らず、効率的なオンライン

授業を行えるように持続的なオンライン活用研修を実施した。

オンライン授業のもう1つの問題は、授業で生徒の集中力をどれだけ維持できるかという点だ。学習機器に慣れていなかったり学習に興味がなかったりする生徒の場合は、顕著に集中力が落ちて、結局は授業参加率の下落につながる。これを解消するためには事前に生徒の関心や興味を把握して、レベルに合わせた授業設計と活動中心の授業を行うことが効果的だ。自己主導の参加型による進路体験では、大体の生徒の集中力と学習参加率が高かったことをプログラムの運営経験から確認できた。

未来教育の考察

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は新たな日常の基準、すなわちニューノーマルの時代を開いている。こうした日常の変化による新しい基準は、これから行われる進路教育にも変化をもたらすと思う。進路教育は、生徒が未来への不確実性に柔軟に対処し、自分の進路を絶え間なく模索して挑戦しつつ、自分の価値を発見できるよう支援することであり、生徒が学校と地域社会、そしてオンラインとオフラインの境界を行き来しながら、自分の進路と、必要によってはさまざまな場所で大勢のメンターに出会って学べるように支援することである。

コロナ以降の教育体系は、オン・オフライン

が混在する形が一般的になると予想する。コロナ感染拡大の初期に、プラットフォームの準備不足によって課題または資料を共有することが中心の授業から、今はリアルタイム双方向で遠隔の授業が一般化していった。米国のミネルバ大学のように、オンライン授業と学生寮生活を通じて、密度の高い体験プログラムとプロジェクト学習が混在するブレンディッドラーニング方式の未来教育が進路教育にも段々と導入されていくことになると思う。

城北進路センターは、こうした流れを反映してコロナ以降に備え、オンラインとオフラインが混合したブレンディッドラーニングのプログラムとの接合を試みようとしている。現在進められている自由学年制プログラムと、城北の歴史文化地域資産を基盤としたプロジェクト型進路プログラムとなる“城北地域特化事業”に最初に適用してみる予定だ。オンライン授業で事前に基本的な学習情報に慣れておき、オフラインで深度ある討論と体験、そしてプロジェクトの遂行によって、混合して運営するフリップドラーニング (Flipped learning) を導入しようとしている。

コロナ禍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
- 熊本市の取組 -

田中 慎一郎

熊本市教育委員会事務局 学校教育部 総合支援課

コロナ禍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 —熊本市の取組—

田中 慎一郎

(熊本市教育委員会事務局 学校教育部 総合支援課)

はじめに

2016 年 4 月に発生した熊本地震。その当時の熊本市立小中学校への教育 ICT 導入レベルは、政令指定都市の中で下から 2 番目の 19 番目と非常に低い水準であった。しかし、本市が復興に力を注ぐ中で、市長が打ち出した「100 年後の未来への礎づくりとして、子供たちの教育 ICT への環境づくりが非常に重要である」との方針により、新学習指導要領が小学校で全面实施となる 2020 年度に間に合わせる形で、タブレット端末等の導入を段階的に進めてきた経緯がある。その中で新型コロナ感染防止のための臨時休校である。子供たちの学びを止めないため、熊本市が行ってきた取組を紹介する。

オンライン授業への 5 つのステップ

オンライン授業を進めるにあたり、市教委は図に示す 5 段階を用意した。子供や家庭とのつながりを臨時休校下でも維持し、徐々に学び合いから他への発信までできるように各学校での実践を進めた。また、同時にオンライン授業のモデルを示すことで、すべての教職員が利用可能なものにするためサポートを行った。



オンライン授業では、必ずしもタブレット端末をずっと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はなく、ノートに書いたものをタブレット端末で撮影して提出をし、それに対して授業者が、タブレット上で線を引いて子供に返却するといったことも行われた。本市における ICT を活用した授業は、コロナ禍以前においても「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を目指すためのものとしており、OECD が示す Student Agency でも示される力の育成を目指していた。OECD は、これらの力を「変革を起こすために目標を設定し、振り返りながら責任ある行動をとる能力」と定義づけている。また具体的には「働きかけられるというよりも自らが働きかけ」「型にはめ込まれるというよりも自ら型を作り」「他人の判断や選択に左右されるというよりも責任を持った判断や選択を行う」としている。臨時休校中のオンライン授業においても、授業者の中にはそ

れを意識して進めた教職員もあり、そのような授業を受けた子供の中には、自ら学んだことを動画で教材化し提出してきた小学生もいた。

キャリア教育におけるオンライン授業

本市における臨時休校期間中に行ったオンライン授業は、先にも示した通りコロナ禍を見越したものではなく、100年後の未来の礎を担う子供たちに必要な力を身につけさせるべく準備してきたものである。1年前は世界の誰もが、現在のようなコロナ禍を想像し得なかった。つまり「これから今の社会がこのまま続くのか、それとも全く違う社会になるか。それすらわからない時代」の中で自分たちが生きていることを実感させられたことになる。そのような時代において、「社会的・職業的自立」に向けた力をどのようにつけさせていくか、課題になってくる。社会が変化しても学びを止めないことが重要である。そういった意味では、これからICTを活用した授業は、普段の授業の中でも推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コロナ禍において世の中の職業も大きく変化した。子供たちが社会に出た時、自分が目指す職業が世の中から無くな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これからの時代を生きる子供には、時代に適応できる力が必要である。本市はそういった意味でも「身の回りのありとあらゆるものを活用して、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実現していく」子供たちの姿を目指している。その中に、ICTやAIなどの力も含まれると考える。

先進校での実践

上に述べたような視点から、企業と一緒に becoming コロナ禍においてもキャリア教育を進めている先進校が、熊本市立北部中学校である。同校では、平成30・31年度国立教育政策研究所、熊本市教育委員会教育課程研究「ESD」の指定校として、研究テーマ「人とつながる社会とつながる未来とつながるESD～ESDを通した学習指導と評価の工夫改善～」のもと、「持続可能な社会づくりの担い手を育む教育」のあり方やESDを学校全体で体系的に推進するための教育課程の編成や指導方法等の工夫改善について研究を行ってきた。そこで行われている特徴的な実践を一つ紹介したい。

IT企業と連携した授業

同校は3年生の総合的な学習の時間でオンラインでのフリーマーケット企業「メルカリ」と連携した授業を行った「Project2040～20年後のビジネスモデルを考えよう～」と題し「20年後のビジネスモデルを考えよう」をテーマに課題解決型学習プログラム(PBL)に取り組んだ。これまでの価値交換の変遷や現在のビジネスやサービスなどを学び、20年後の未来は、どのようなビジネスやサービスがあったらよりよい社会になるのかをグループワークを通して議論し、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行った。普段学校の授業において経済の仕組みやビジネスについて考える機会がほとんどない生徒たちにとって、社会の課題を自分事として考え、解決しようとする力を身につけることができる大変意義深い学びとなった。

企業と結んだ授業は、オンラインで行われた。企業からの講義は、オンラインで進められ、その講義を受けて生徒は自らのビジネスプランを考えた。その後、生徒は企業から直接アドバイスをもらい自らのプランを最終的に練り上げて発表した。

ある生徒は「自分の体験を他の人に売る」といったモデルをビジネス化しようと考えた。その生徒によると「ハワイで旅行したら、自分も行きたいと思っている人がたくさんいるだろうから、その人たちに自分の体験を売るといった内容だ。体験BOXなどを用意し、ビデオを流すだけなら今までと何も変わらないから、その場の気温や風、雰囲気を感じる仕掛けを作るそう。この取組が興味深いのは、ビジネスモデルとして成立させるところまで考えている点だ。買い手と売り手の間に企業が入り、売り手に旅行で体験した素材を提供してもらい、その上で企業が体験BOXを作成し買い手に売るといったものだ。売り手は旅行をただで、お金をもらうという利点があり、企業が買い手から得た金額の4分の1を売り手に支払うところまで計算している点が面白い。体験したい気持ちをみんなに持たせることで、旅行会社とのタイアップも考えられる。

おわりに

世界で一番大きなタクシー会社。その会社は車を一台も持たない。ご存知、「Uber」である。今年8月から、その「Uber」の食事宅配がコロナ禍を受け熊本市でも始まった。アイデアが新たなビジネスを生み出す。北部中の生徒が考えたビジネスモデルも、それに近いものを最

近テレビで目にした。世の中がこの1年で大きく変化しているのを実感する。キャリア教育も新しい時代を見据えて様々なものに挑戦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

参考文献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小学館 総合教育技術10月号
時事通信社 教育委員会が本気出したらスゴかった
熊本市立北部中学校 <http://www.kumamoto-kmm.ed.jp/sch/j/hokubujh/esd/>

コロナ時代における本校のキャリア教育
- 臨時休業期間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実践 -

福本剛史
埼玉県立浦和商业高等学校

コロナ時代における本校のキャリア教育

— 臨時休業期間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実践 —

福本剛史

(埼玉県立浦和商业高等学校)

臨時休業に至るまでの過程とその対応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蔓延という未曾有の事態が、急速な展開で我々の生活や教育現場を変化させまし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報じられてから数ヶ月、感染の拡大が教育現場に大きく影響を与え始めたのは、2月27日(木)夕刻、内閣総理大臣から、3月2日(月)より全国すべての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について春休みに入るまで臨時休校とするよう要請が出された時からでした。これを受けて、埼玉県では翌28日(金)に3月2日(月)から学年末休業日前まで、臨時休業とするとの通知が教育長名で発出されました。

本県では、毎年2月下旬に高校入試が実施されており、28日はその当日でした。前日27日はその準備のため、本校では生徒たちに2月28日(金)から3月4日(水)・6日(金)は入試に伴う臨時休業となるための指導などを行い、午前で放課となっていました。そのような中での長期間に渡る臨時休業の発表は、今後どのように対応していくかについて十分な指導ができず困惑せ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入試をどうする

か、卒業式の実施はどうか、在校生への指導をどうするかなど、短期間で決定・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とが山積していました。

本校は専門高校ということもあり、このような状況になる前から情報に関する機器・教育は充実していました。しかし、Net 通信を利用したICTによる支援については個人情報の観点などから進んでおらず、生徒がホームページ(HP)を見て情報を知る程度に留まっていました。感染者数が増加してきた2月頃からは、本校では生徒たちに常にHPの情報を確認してから登校するように指導してきました。

例年本校では、入試前の2月下旬に学年末考査を実施し、3月は次年度へ向けた様々な準備期間として行事を行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当初、27・28日に示された学年末休業日までの臨時休業であれば、特に学習の遅れは生じず、春休みの宿題をどのように指示するかを検討を行えば済むところでした。しかし、毎日のように感染者数が増加していく状況から、国の緊急事態宣言を受けて、本県では臨時休業期間が5月31日(日)まで延長されました。その結果、長期間に渡る休業期間の対応についての検討が必要となりました。

臨時休業は、進路指導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例年本校では3月に、2年生に対し次年度へ向けて実際の企業などを訪問する見学会などを実施しています。今回も訪問先との打ち合わせなどの準備を終え、2月中旬には生徒たちに事前指導も行い3月12日(木)の実施を待つばかりでした。4月からは、進路ガイダンスや適性検査、模擬試験など段階的な進路行事や進路相談が予定されていました。新年度は、入学・進級した生徒に意識啓発を行っていく大切な時であり、この時期の臨時休業は、特に新3年生への悪影響が懸念されました。この状況下、臨時休業中また学校再開後の進路指導の在り方について、進路指導部を中心に何度も検討されました。

ICT活用

本校では、当初行ってきたHP上の情報提供はセキュリティ面からも問題があり急遽、グループウェア上でログインして利用する「コミュニティルーム」を設置しました。生徒用のコミュニティルームは、ICTによる学習支援システムとして、全体への連絡のほかに、学年・教科別にキャビネットを用意し、課題の提供などを行えるようにしました。また、教科別に質問できるメールアドレスを用意し、課題に対する質問も行えるようにしました。また、学習以外の質問や相談にも対応できるアドレスも用意しました。教職員用のコミュニティルームでは、連絡と資料提供用として日ごとのキャビネットが用意されました。その後本校では、長期化する臨時休業への対応とICTの活用実践のため、埼玉県教育委員会が導入しているGoogle社の

「G Suite for Education」のグループウェア「グーグルクラスルーム」の活用を進めました。その結果、生徒へのICTによる学習支援はコミュニティルームからクラスルームを活用したものへと移行していきました。現在では、アンケートや希望調査などについても、クラスルームを使い実施しています。

教育現場では、先の見えない状況下において第2・3波による感染拡大の予想も踏まえて、再度の臨時休業を視野に入れた取組を始めました。本校では家庭と学校をつなぐICTについては、コミュニティルームやグーグルクラスルームの活用という仕組みが形成され、臨時休業期間中は連絡・提供手段として活用してきました。学校再開後には、例年集会形式で行っている次年度の選択科目説明会について、密閉・密集・密接を避けるためコミュニティルームを利用してネット上で実施しました。また、例年、全学年が一斉に集まって行っていた講演会は、1・2年生は集会形式で、3年生は教室でネット参加する形式で実施しました。

文部科学省はGIGAスクール構想の前倒しを決定し、先日、追加の支援措置も講じられました。本県の高校においても今年度中には各教室などにWi-Fiが整備されるなどの環境整備が行われます。今後、ICTの一層の有効活用が検討されています。

進路指導

臨時休業の影響は、進路行事による生徒の意識啓発に対しても禍根を残しました。

3月12日(木)に計画していた企業見学会も実施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この行事は進路決定

に向けて生徒の意識啓発を大いに高めることから、中止は避けたいと各企業に延期の依頼をしたところ、ご理解をいただき6月上旬の実施となりました。しかし、たび重なる臨時休業の延期から最終的に中止せざる得なくなりました。進路ガイダンスも行えず、生徒たちと話し合い相談する機会も持たないまま、時間だけが過ぎ去っていきました。

埼玉県では臨時休業の登校日は原則設けないとの指示がありました。しかし、個別に進路相談などはできるとのことから、急遽コミュニケーションルームを使い、進路個別面談の連絡を行いました。そうしたところ約50名の生徒から申込みがあり、5月15・18・19日の3日間、時間を分けて一人ずつ個別相談の機会を設けました。その面談から、生徒たちは臨時休業によって情報収集ができないことや、今何をするべきかなど大きな不安を抱く者が多くいることが再確認できました。そこで、「3年生への連絡」と称して、面談の案内を再度掲載すると同時に、3月頃から専門学校などでWeb説明会や相談会が実施されていたことから、その活用方法などの説明も掲載しました。その後、進学希望者・就職希望者に対して今できることなどに関する情報も掲載し、加えて文部科学省「子供の学び応援サイト」や全国高等学校進路指導協議会「家で出来る進路学習！」の情報提供も行いました。これらの情報は、逐次更新しています。

生徒との面談から、生徒たちは情報収集の方法を知らないことがわかり、5月22日には「進路情報サイトの紹介」の資料提供を行いました。この中では、就職についての基礎知識、求人票の見方、面接対策講座、公務員試験案内や、進学者の情報として奨学金の案内や学校の調べ

方についてのサイトリンクが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

現在は、進路指導部のクラスルームを活用して各種調査や就職・進学情報の提供、面接指導や作文・小論文指導動画の提供などを行っています。

今後の進路指導では、face-to-face と Net のハイブリッド型の指導がより必要になると思われる。

学校では ICT を含め様々なことが、ここ数ヶ月で変化しました。臨機応変に行ってきたこの急速な変化への対応を、ここで一度整理し見直していくことも大切かと思います。そして次年度、またそれ以降と継続していける形作りを行っていくことも必要と感じます。



アフターコロナのキャリア教育を見据えて
- 「社会に開かれた教育課程」の新たな形「キャリアチャレンジデイ
On-line Meets」 -

若江真紀
株式会社キャリアリンク

アフターコロナのキャリア教育を見据えて

—「社会に開かれた教育課程」の新たな形「キャリアチャレンジデイ On-line Meets」—

若江真紀

(株式会社キャリアリンク)

問題と目的

2020年3月、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のため、全国に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ました。この未曾有の事態により、学校教育の現場で大混乱が起きたのは、ご存じの通りです。この事態に、私達は「対面による授業や体験ができない」という子供達の学びの場、学習機会の損失に対し、憂慮しました。

対面でのキャリア教育に様々な課題が生じた状況で、企業側からは「教育支援の提供を継続するために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相談が、そして学校側からは、「社会とつながる学びやキャリア教育で実施していた職業体験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何か代替できることはないか」という相談が双方から相次いで寄せられました。

そこで、弊社では、以前東北大震災の復興事業の際に行った「キャリアチャレンジデイ（以下「CCD」）」という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を、この緊急事態における弊社の社会貢献事業として、活用できないかと考えました。幸い、Society5.0が掲げられている今、文部科学省で

も推進されている学校 ver. 3.0、GIGA スクール構想により、少しずつ学校の ICT 化が進んでいましたので、「対面ではなくオンラインで CCD を開催する」ことを決めたのです。オンラインによる CCD を「キャリアチャレンジデイ On-line Meets」と題し、授業※図 1 参照を実現すべく、学校や企業へ説明会を行い、参加を募ったのです。これが実現すれば、学校にとっては「緊急事態における『社会に開かれた教育課程』の実現」「ICT を活用したキャリア教育推進」が達成されます。企業にとっては、子供達の学びを止めないという緊急事態における最も高い学校ニーズを満たした教育支援活動の実績となり、もちろん、子供達にとっては、このような事態においても外部とつながりをもつことで、キャリア教育における学びの機会を得ることが可能になる、まさに三方良しの事業と考えました。

方法

授業を成功に導くために、下記 4 つの課題を解決できる方法を、並行して探っていました。

1. 学校側で実施可能な ICT 環境（回線状況や機材）の調査と整備支援

現在、GIGA スクール構想が加速的に進んでいるものの、中学校の ICT 環境は学校（市町村）によって個別的な状況にあります。そのため、参加希望の学校側の ICT 環境を学校側に一つ一つ丁寧にヒアリングし、教室と外部を接続するために必要な事柄を明らかにしながら、回線のセキュリティの課題や機材の課題を解決しました。

2. 学校、企業がつながることのできるオンライン上の実施会場選定と調整

ICT 環境と同様に、外部と接続が可能なオンラインツール（web 会議システム）もさまざまでした。しかし、関係者が一堂に会するために、オンラインツールの統一が不可欠であったため（ある学校の使用アプリは、別の学校では使用不可など）、これについては、本事業の提供主体である弊社使用のオンラインツール（Google Meet）で行うことを決め、学校側と企業側が弊社提供のオンラインツールでの接続ができるよう課題を解決していきました。

3. オンラインで実施するコンテンツの開発と運営管理（子供達の学びを保証する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と企業講師から提供されるコンテンツの均質化）

実施するコンテンツは、「CCD On-line Meets」として統一されたキャリア教育プログラムとしました。既存の対面式の「CCD」をオンラインによる実施用に時間配分など進行を

最適化し、子供達の学びと企業提供のコンテンツの均質化を保証しました。

4. 子供達と講師をつなぐコーディネーターとテクニカルサポートスタッフ配置による運営支援

8つのオンライン会場に8名の企業講師と学校（先生と子供達）が接続し、授業を実施するにあたり、当日の授業進行を担う各会場＝ブースでのコーディネーターの存在が不可欠でした。全体を管理する総合コーディネーターに加え、ブースコーディネーターは、個別の講師が授業を行う際に、先生も講師も慣れていないオンライン授業をスムーズに進行させるキーパーソンとして、授業進行を行い、授業の成立を保証しました。ブースコーディネーターは、将来的には、弊社スタッフ以外の有資格者の参加を募り、参画いただく予定です。また、接続やアプリ使用に関するテクニカルな部分については専門のスタッフの配置によりスムーズな実施を担保し、当日はその機能を果た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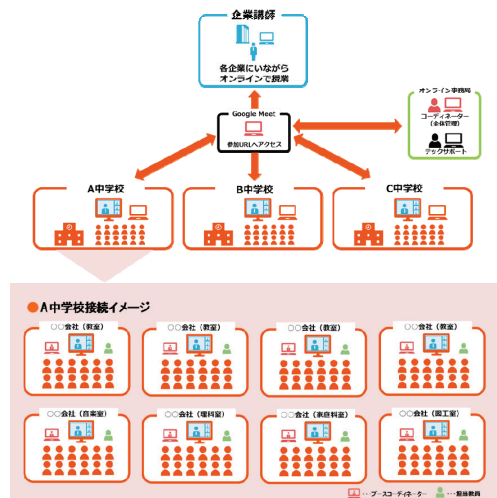


図1: キャリアチャレンジデイ On-line Meets 実施体制図

結果と考察

このように、準備を丁寧に進めた結果、実際に実施した先生や子供達からは、「普段聞くことができない企業・講師の話聞くことができ、通常は近くの企業に体験させるだけで終了していたが、職場体験とは違う視点でキャリア教育の学びができた（先生）」「違う学校の生徒の質問を聞くことで、多様な視点から物事を捉えることができた（先生）」「自分の好きなことだけでなく、がんばっていききたい（生徒）」という感想を、また、企業講師からは「参加したことで自分自身にも良い経験になったことと、とても深く良い質問がたくさん出ていて事前の学習をしっかりしてくれていて、嬉しかった」という感想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うして、初回の授業は大成功をおさめました。この事業がもたらした成果は、「学校は外部とオンラインで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オンラインで講師と教室がつながり、懸け橋となるキーパーソン（コーディネーター）がいることで、子供達の学びが保証される」ということでした。これは、環境さえ整えば、地域リソースが少ない地域（離島や過疎地域等）の子供達が、これまで対面ではつながることが難しかった他地域の企業、後々は世界の企業と直接つながることができ、キャリア教育の機会が保証され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といえるでしょう。今年度は4回の実施を予定しており、初回から3回目は各3校の中学校と各8社の企業が参加しますが、4回目の実施では、新たな試みとして、中学校は1校ですが、生徒が一人1台の端末を接

続できる環境で、授業を行います。今回の事業は、図らずも未曾有の事態が推し進めた「講師対教室」の接続と学びへのチャレンジでしたが、それが実証された今、弊社が目指すのは、アフターコロナ、GIGA スクール構想で来るべき学校 ver. 3.0 で当たり前となる「一人1台」端末での個別最適化の学び、ユビキタスの学びを、どのように実現でき得るかを実証していくことです。このように、キャリア教育における ICT の有効活用事例を様々な形の実績で積み上げ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さらに、実施における今後の課題は、費用負担についてです。関係する組織体がどのような形で協力を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次年度以降検討が必要な事項となってくるでしょう。

参考文献

- 内閣府 Society 5.0「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が拓く新たな社会」説明資料
- 文部科学省（2018）Society5.0に向けた学校 ver. 3.0
- 文部科学省（2020）令和元年度 文部科学白書
- 文部科学省（2020）「GIGA スクール構想」について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ypical of notebook or legal stationery.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illegible]

[illegible]

자료집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 第3回日韓ラウンドテーブル

코로나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コロナ時代のキャリア教育, 日韓の比較

인 쇄 2020년 11월 26일

발 행 2020년 11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김 현 철(원장직무대리)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